



일자리·평화·나눔의 세상 위하여

손학규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2006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오랜 침체의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을 향해 재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첨단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에 있어서는 2004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전국 투자유치건수 88건의 60%인 52건을 경기도가 이루어내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전국 일지리의 60% 가까이 꾸준한 경기도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GDP의 23%, 지식기반산업의 40%, 바이오산업의 60%, 반도체산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은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참으로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새해에도 10년 앞, 20년 앞을 내다보는 큰 틀에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국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첨단 R&D의 꿈의 무대인 광고 테크노밸리와 판교 IT·업무지구를 계획대로 조성해 나가는 한편, 산·학·연 협력과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피와 땀으로 유지해 온 외국 첨단기업에 대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첨단기술의 파급효과를 확산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저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민생복지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으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여러분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2005년 11월까지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5%가 경기도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은 경기도정의 대표상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흔들림 없이 앞장서 갈 것입니다. 이념·지역·세대로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에 통합의 물결이 새로 일어나야 합니다.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시대정신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06년 새해에는 갈등과 대립의 마찰음이 사라지고, 화해와 상생의 화음이 온 나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발전과 도약 전환점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 갑)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포천신문 독자 여러분과 경기북부 주민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 참여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갈등적 요인들로 매우 힘든 한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든 기억들을 모두 털어버리고, 2006년에는 희망과 반가운 소식들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해에는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등 특별법"이 곧 제정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문화 및 경제적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에 매우 큰 계기가 되리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해 제정되는 것인 만큼, 이 특별법이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포천신문 독자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들도 희망적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에 크게 부각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현명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평화적이고 슬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남북간 평화정착 실현이 눈앞에 있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은 지역역량이 축적되어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발전의 연속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2006년에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여,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갈등과 반목보다는 상생과 화합, 국민 대통합의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경기북부 주민들과 중산층 서민들의 주름이 펴지고, 보다 희망한 한해가 되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해와 상생의 병술년 한해

강성중
국회의원(의정부 을)

희망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반목과 대립으로 일관되어온 낡은 날이 지나고 기대와 희망을 다시 품어보는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신 가운데 다시없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 큰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전 교수신문은 올해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설문조사한 결과 상화하택(上火下澤)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불은 위로 오르려하고, 못은 아래로 처지려는 성향을 가진 것처럼 서로 이반하고 분열한다는 의미입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대립과 반목이 물결 불처럼 대치하고 있었는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유년 한해는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 불안과 혼란이 거듭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도약이나, 아니면 좌절이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국민의 지혜를 발휘하여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야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희망의 새 날을 열어 갑시다. 다가오는 병술년 개띠 해는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희망을 가져옵니다. 우리조상에게 잡귀와 액운을 물리쳐 집안의 행복을 지켜주는 상징과 의미로 자리하고 있는 개띠 해에는 반목하고 대립하는 아집에서 벗어나 화해하고 상생하고 함께 어깨를 나누는 꿈을 가져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뜨거운 땀을 흘려 즐거운 미소를 나누는 그 날을 간직했으면 합니다. 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새로운 시작 앞에 여러분 하나하나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변치 않는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뜻 모아 자치공동체 실현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변화와 발전을 일궈냅니다.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을 뚫고 붉게 떠오르는 아침 해 처럼 지난 한 해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갈고리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물이켜보면 지난 해는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해는 제게 매우 뜻깊은 한해로 기억될 듯 싶습니다. 저의 핵심공약인 경원선 개통 예산 확보와 미군공여지 특별법 제정, 그 두 가지가 모두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원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많은 진통도 있었지만, 지역주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전환은 제게 더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 없이 여의도로 응원방문을 해주신 동두천 시민들의 열정은 무한한 용기를 북돋워주었습니다. 경원선의 개통은 분명 경기북부지역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역의 꾸준한 발전을 가져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소외 받지 않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토대로 살기 좋은 경기북부 지역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자만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 사고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다같이 단합하고, 화합하여 꿈과 희망의 새 날을 열어 갑시다. 요즘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만나보면 예전의 깊은 절망과 체념이 기대와 설렘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국민이 추진되는 여러 도로사업도 예산의 초과확보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교통문제도 곧 해소될 전망이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개발규제 완화조치가 가시화되어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단합된 주민의 뜻을 모아 지역을 제대로 된 자치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주민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목표를 두고 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새해에는 지역주민 여러분 모두 새롭고 웅대한 포부로 풍성한 기쁨 속에 뜻깊은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포천신문의 활동은 우리의 기쁨

김병수
포천중문의대 총장

여러 지역의 기관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필자로 이번 신년사를 포천신문에 쓰면서 느끼는 감회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지역신문이 주민이나 기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정복적으로 받으며 지역발전엔 큰 도움을 주는 신문은 우리 포천신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언론기관이 지역 주민에 군림하고 권력기관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포천시가 경기북부의 거점시로 발전해가는 많은 변화들을 보면서 포천신문의 활동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며 기대이다. 존경하는 박윤국 시장님과 포천시의회 의원님과 유관단체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포천 개발 계획안이 성안되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을 감사하며 금년부터 우리 모두 더 많이 실적을 보게 될 것을 믿는다. 세계화 시대에는 지역과 우리나라 전국 도시, 또 나아가서 세계와 직접 교류하는 것이 현실이다.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연자원 중에 앞으로 더욱 개발해야 할 내용이 많지만 관광, 교육, 스포츠 등 soft-ware도 발전시켜 미래 산업인 service산업 개발에 온 시민이 힘써야 하겠다. 단위도시로는 포천시는 다행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등교육기관이 3개나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경북대학교는 물론 제가 봉직하는 포천중문 의과대학교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교입니다. 의과대학은 물론, 간호학과, 보건학과, 실버산업복지학과등도 대단히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포천중문 의과대학교는 일찍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불임(시험관이기)연구, 생식 의학 연구는 세계 최고이고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로 미국의 연구소와도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국 규모 대학들이 포천시에서 잘 발전하므로 포천시는 물론 포천신문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기관으로 될 것을 바라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및 패러다임 재정립

황성택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장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해가 지나고 병술년 희망찬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특히 경기침체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만큼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 농협은 40여년 동안 각종 사업을 통해 농업인 실익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농업인과 농업에는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쌀 가격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쌀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농업인들의 불안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이 대폭적인 관세감축 등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타결될 경우 고추, 마늘 등 주요 소득작목들이 입을 피해는 쌀보다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농협은 책임 있는 생산자 단체로서 이 위기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재정립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농업인 가족 여러분! 저희 농협은 "새농촌 새농협 운동" 실천과 "법국민 농촌사랑운동" 전개를 통해서 농업인과 국민에게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농협을 사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면은 더욱 보완하여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신뢰받는 농협으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중추적 언론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독자들에게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선 포천신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표이사 박노현




플라포리스, 원단가공을 취급하는 용아섬유(주)는 앞으로보다 나은 제품생산을 하기 위하여 화합된 모습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아울러 새해에도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 일동

경기도 포천시 설운동 267-8 TEL : 541-7613 FAX : 541-7615

용 아 섬 유 주 식 회 사

삶의 질 향상에 혼신의 노력



김문원
의정부시장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2006년,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고 의정부시가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정부시는 많은 제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시책들을 도출해 내고, 이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직동·추동 공원은 공원지정 50년만에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화룡역 앞 방호벽의 철거는 모든 일에 있어 주민편익이 최우선임을 입증시켜 준 획기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풍물거리를 철거하고, 그곳에 양지 공원을 만든 일, 주요도로와 역주변의 노점상을 정비한 일들은 우리시가 친환경도시로 변모·발전해 나가는데 촉매역할을 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최근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청렴우수도시로 선정되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국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41만 시민과 함께 축하해야 할 크나큰 경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공직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노력과 함께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2006년이 우리시에 있어서 희망과 기회의 한해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어디에 올래 시정의 중점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에 두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사업인 중앙천 및 부용천 환경개선 사업과 이와 연결되는 하천들에 대한 정비사업을 통하여 하천을 시민들의 종합 휴게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직동·추동공원에 대한 2차 조성사업으로 축구장과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화룡역 앞 방호벽 철거부지에는 택시승강장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군사시설들에 대해서도 연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반환공여지를 활용하여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고, 공원과 도로를 신설하는 등 생산적인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올 6월에, 우리시에는 최초로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이에 따라 변화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도로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추동정보과학도서관과 어린이전용도서관의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평생학습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를 비롯한 의정부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만 나는 의정부의 건설은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각계각층 시민여러분의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화합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한데 모아 땀 흘려 일하고 풍요를 수확하는 결실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영의 도시·양주건설 매진



임충빈
양주시장

2006년은 "희망 양주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번영의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2006년, 병술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양주시 전역에 가득합니다. 이 기운으로 올 한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활력이 넘쳐시길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양주시는 2003년 시 승격을 계기로 많은 사업을 구상했고,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힘든 출발과 함께, 힘차게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후되고 소외된 양주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인권 진출과 평화로 우회도로 그리고 서울외곽고속도로, 「전철시대와 고속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시민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과 발전을 위한 번영의 가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뛰어야 합니다.

그러면 양주는 2010년 인구 27만 2005년 인구 60만의 계획된 희망의 "자족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양주는 경기 북부의 새로운 "거점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양주시를 "희망의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45만평 규모로 7만천 세대 가 생활할 수 있는 교육, 육정, 회천지구는 중·저밀도의 문화·웰빙 도시로 개발됩니다.

또, 백석고등학교를 비롯한 5개 학교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 추진과 오산, 은현, 광적, 장흥 등 권역별 생활체육공원의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이룰 것입니다.

아울러 양주를 "상공의 도시" 활기차고 도전적인 청년이 땀 흘려 일하는 "젊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기업 사립을 통해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실현하겠습니다.

『양주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첨단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기업단지 조성, LCD협력업체 추가 유치, 섬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능력 있는 "청년세대"에게 고소득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21세기는 화합(和合)과 상생(相生)의 시대입니다. "나눔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하고, 회천2동 지역에 「We Start 마을」을 조성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와 교육기회 제공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간 정보교환』, 『전문 자원봉사 대학운영』, 『수요자와의 연결 창구』등 자원봉사시스템을 전문화·체계화하고, 저 출신문제는 "돌봄케어 보육료" 지원으로 직장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 노인 일자리창출과 『장수수당 지급』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는 등 건강한 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친절, 공정, 신속, 투명한 민원 처리를 위해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와 맞춤형 행정을 통해 양주를 " 으뜸행정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새아침 인사화, 양주시 홈페이지, 반사회,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요시책과 대규모 사업은 사전설명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정책과 시장방향을 설정 할 것입니다.

양주시민 여러분! 번영의 역사를 새로 써 갑시다. 생명을여 남치는 "번영의 도시, 양주"를 만들어 갑시다.

저와 7백여 공직자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땀 것입니다. 2006년은 "희망 양주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을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 반영 균형발전 이룩



최용수
동두천시장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06년 대망의 丙戌年, 새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 해 아침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항상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변화 없이 시정과 지역발전에 애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림과 동시에, 새해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지난 2005년은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시기였지만 8만 3천 동두천 시민 모두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일본은 독도를 고구 영토라고 주장하며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여 우경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우경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세계최초로 배아 줄기 세포를 배양하여 난치병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실용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논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놓고 시끄러운 한해였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국회사정으로 법안심의가 연기된 데 대하여 마진현안대책위원회 등 20여명이 국회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법안이 임시 국회에 상정되어 공여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중에 있어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시민 모두의 승리이며 가슴 벅찬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우리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시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해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를 하였으며,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교육문제가 해결되어 기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최첨단시설을 갖춘「꿈나무정보도서관」, 「상쾌교 준공」, 「재활용선별장 건립」, 「공립」안호어린이집, 「지혜의 등대」, 「공암동 다목적회관」, 「해오름어린이집」등을 건립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 「동두천하이테크위건립」도 올해 말에 준공을 하여 도시형 업종이 입주하게 되면, 300여명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시의 대부분이 산악지형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협소해서 지역개발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제한된 여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미군 공여지 활용과 국제자유도시 건설 등 국가 및 도(道)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원에서 마련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을 남북교류 중심의 산업벨트 개발하고, 낙후된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취역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완화하고 공장 총량배정을 우선적으로 받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우리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금년도 주요 시책의 7대 시정 방침을 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



김규배
연천군수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동료 여러분!
2006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술년 새해 아침을 군민과 함께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군민여러분의 성장과 행복과 활력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애임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크고 작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는 월드컵 최종 예선을 통과하며 6회 연속 월드컵 출전이라는 쾌거를 거두어 지난 대회에 이어 스포츠 강국의 지력을 세계인에게 과시하였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도 지난해 5월 전국구 구석기축제를 70여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하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의 자부심과 애함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반인륜적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계속 발생하여 귀중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지구촌은 지진과 허리케인,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상 등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민중의 시대」인 21세기로 접어들기 5년이 지났지만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쓰나미 등 잇따른 자연재해 앞에서 인류의 과학은 무력하게만 느껴주는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여타의 경쟁에서 처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자원과 노력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혁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며 지역의 균형발전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무대에 직접 나서야 하는 무한경쟁의 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는 21세기 인간·환경·통일 중심의 역동하는 연천을 건설하고 떠나는 연천에서, 돌아오고 싶은 연천, 다시 찾고 싶은 연천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노력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군정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 10대 분야 100대사업으로 이루어진 「연천비전 2006」을 확정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의 방향과 목표를 살명,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공직자에게는 혁신적인 자세와 강력한 실천력을 제시, 100년 후를 내다보는 전리안으로 21세기 역동하는 연천건설을 위하여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동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격변한 현실과 경제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21세기 역동하는 로하스 연천」을 건설하기 위한 군민의 열원이 중단되거나 우리의 미래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論語)에 「지나이지(知難而進)이란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처지를 일면서 계속 꾸준히 전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삶과 군정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군정을 당당히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와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찬 병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바른 뉴스

포천신문은 전국 最高의 지역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의 시정(市政)을 해설·소개하고 시내(市内)의 각종 행사와 유명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입금계좌 : 농협(585-02-172934)

예금주 : 최호열/포천신문

2000년 10월 25일	포천신문 제140호 발행	2001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175호 발행
2000년 11월 06일	포천신문 제141호 발행	2001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176호 발행
2000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142호 발행	2001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177호 발행
2000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143호 발행	2001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178호 발행
2000년 12월 11일	포천신문 제144호 발행	2001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179호 발행
2000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145호 발행	2001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180호 발행
2001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146호 발행	2001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181호 발행
2001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147호 발행	2002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182호 발행
2001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148호 발행	2002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183호 발행
2001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149호 발행	2002년 01월 19일	포천신문 제184호 발행
2001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150호 발행	2002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185호 발행
2001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151호 발행	2002년 02월 09일	포천신문 제186호 발행
2001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152호 발행	2002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187호 발행
2001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153호 발행	2002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188호 발행
2001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154호 발행	2002년 03월 09일	포천신문 제189호 발행
2001년 03월 30일	포천신문 제155호 발행	2002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190호 발행
2001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156호 발행	2002년 03월 30일	포천신문 제191호 발행
2001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157호 발행	2002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192호 발행
2001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158호 발행	2002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193호 발행
2001년 05월 19일	포천신문 제160호 발행	2002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195호 발행
2001년 05월 30일	포천신문 제161호 발행	2002년 05월 18일	포천신문 제196호 발행
2001년 06월 09일	포천신문 제162호 발행	2002년 05월 25일	포천신문 제197호 발행
2001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163호 발행	2002년 06월 07일	포천신문 제198호 발행
2001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164호 발행	2002년 06월 15일	포천신문 제199호 발행
2001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165호 발행	2002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00호 발행
2001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166호 발행	2002년 07월 02일	포천신문 제201호 발행
2001년 07월 30일	포천신문 제167호 발행	2002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02호 발행
2001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168호 발행	2002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203호 발행
2001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169호 발행	2002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204호 발행
2001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170호 발행	2002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205호 발행
2001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171호 발행	2002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06호 발행
2001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172호 발행	2002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207호 발행
2001년 09월 29일	포천신문 제173호 발행	2002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208호 발행
2001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174호 발행	2002년 09월 18일	포천신문 제209호 발행

2002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10호 발행	2003년 10월 11일	포천신문 제247호 발행
2002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211호 발행	2003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248호 발행
2002년 10월 19일	포천신문 제212호 발행	2003년 10월 31일	포천신문 제249호 발행
2002년 10월 30일	포천신문 제213호 발행	2003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250호 발행
2002년 11월 09일	포천신문 제214호 발행	2003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51호 발행
2002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15호 발행	2003년 11월 29일	포천신문 제252호 발행
2002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216호 발행	2003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53호 발행
2002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17호 발행	2003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54호 발행
2002년 12월 20일	포천신문 제218호 발행	2004년 01월 01일	포천신문 제255호 발행
2002년 12월 30일	포천신문 제219호 발행	2004년 01월 10일	포천신문 제256호 발행
2003년 01월 09일	포천신문 제220호 발행	2004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57호 발행
2003년 01월 20일	포천신문 제221호 발행	2004년 01월 31일	포천신문 제258호 발행
2003년 01월 30일	포천신문 제222호 발행	2004년 02월 10일	포천신문 제259호 발행
2003년 02월 09일	포천신문 제223호 발행	2004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260호 발행
2003년 02월 20일	포천신문 제224호 발행	2004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61호 발행
2003년 02월 28일	포천신문 제225호 발행	2004년 03월 10일	포천신문 제262호 발행
2003년 03월 09일	포천신문 제226호 발행	2004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263호 발행
2003년 03월 20일	포천신문 제227호 발행	2004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264호 발행
2003년 03월 31일	포천신문 제228호 발행	2004년 04월 10일	포천신문 제265호 발행
2003년 04월 09일	포천신문 제229호 발행	2004년 04월 20일	포천신문 제266호 발행
2003년 04월 19일	포천신문 제230호 발행	2004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267호 발행
2003년 04월 30일	포천신문 제231호 발행	2004년 05월 10일	포천신문 제268호 발행
2003년 05월 09일	포천신문 제232호 발행	2004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269호 발행
2003년 05월 20일	포천신문 제233호 발행	2004년 05월 31일	포천신문 제270호 발행
2003년 05월 31일	포천신문 제234호 발행	2004년 06월 10일	포천신문 제271호 발행
2003년 06월 09일	포천신문 제235호 발행	2004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72호 발행
2003년 06월 20일	포천신문 제236호 발행	2004년 07월 10일	포천신문 제273호 발행
2003년 06월 30일	포천신문 제237호 발행	2004년 07월 20일	포천신문 제274호 발행
2003년 07월 09일	포천신문 제238호 발행	2004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275호 발행
2003년 07월 19일	포천신문 제239호 발행	2004년 08월 10일	포천신문 제276호 발행
2003년 07월 31일	포천신문 제240호 발행	2004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77호 발행
2003년 08월 09일	포천신문 제241호 발행	2004년 08월 31일	포천신문 제278호 발행
2003년 08월 20일	포천신문 제242호 발행	2004년 09월 10일	포천신문 제279호 발행
2003년 08월 30일	포천신문 제243호 발행	2004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280호 발행
2003년 09월 09일	포천신문 제244호 발행	2004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81호 발행
2003년 09월 20일	포천신문 제245호 발행	2004년 10월 10일	포천신문 제282호 발행
2003년 09월 30일	포천신문 제246호 발행	2004년 10월 20일	포천신문 제283호 발행
		2004년 11월 10일	포천신문 제284호 발행
		2004년 11월 20일	포천신문 제285호 발행
		2004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286호 발행
		2004년 12월 10일	포천신문 제287호 발행

2004년 11월 30일	포천신문 제288호 발행	2005년 11월 10일
---------------	---------------	---------------



포천신문 가족 만복 축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맞이하는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한 바람을 소원하면서,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에게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 병 기
경북대 학장

인간생활에 있어, 절대적이고 필요 충분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공간, 시간 중에서도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새삼 생각하면서, 이제 새로운 매듭의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질서가 유리되고, 세태가 돌발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잠시 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초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결코 썩지도 않으며, 보관할 수도 없으며, 부자에게 더 주어지지 않으며, 한계효용의 법칙에 구애받지도 않는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포천신문이 숭고한 언론의 정도정신에 입각하여, 그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온 점에 깊은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무릇, 신문과 교육의 목적은 동일적이어서 권력의 쟁취나 경제적인 이윤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과 행복을 실현하는 인간의 양성과 사회발전의 계도에 있다고 볼 때,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문화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에게 날개가 결코 짙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창달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리고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들은 인생의 가장 높은 소망은 "행복 추구"라고 했습니다. 최근 껍질이 조사한 통계에서도 인생의 최고 이상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새해에는 포천신문과 함께, 우리들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가 자아발견에 노력하고, 자기의 비전과 신념을 세우며, 도전하는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비전과 도전은 미래를 창조하는 원천이며, 행복으로 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며, 새로운 가치관과 미래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차, 포천신문을 사랑하고 후원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천이 하나 되는 해로 만듭시다

대망의 새해아침이 밝았습니다. 신년에는 고향의 가정 가정마다 만복이 듬뿍 깃들고 운수대통 하시길 기원 드리며 고향 포천에서 태어나 몸은 비록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지만 항상 고향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고향이 그리워 만나는 재경포천시민회 회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운수대통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문 용
재경포천시민회장

제가 조심스럽게 2006년은 포천이 하나 되는 해로 만들자고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 이유인즉 제가 근무하는 경남신문이 경상도 신문이라 신문사 업무로 진주분인 모인사와 마산분인 장관을 지낸 모인사를 저희 신문사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우리 포천 사람으로서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희신문사 업무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시켰습니다.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인사가 끝나자마자 마자 첫 마디가 어느 학교 몇 회 십니까 하니 진주분이 먼저 진주고등학교 몇 회입니다. 함과 동시에 마산출신 장관을 지낸 분이 일어나 정중히 저는 마산고등학교 몇 회인데 2년 후배입니다. 하고는 선배님께 인사드리겠습니까 하고 허리를 완전히 굽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절을 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마산에서 진주까지는 포천에서 춘천보다도 더 먼 거리인데 포천고등학교 졸업생이 춘천고등학교 졸업생 만나면 선배님하고 절을 할 수 있었습니까? 포천사람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 경상도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광범한 국민정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 놀랄만한 정서는 마산하고 진주는 100리길에 학교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선배 후배를 따지느냐고 질문하니 놀랍게도 경상도는 하나인데 무슨 마산 진주 따져서 경상도가 언제 발전하느냐 경상도는 하나라고 신문에서 캠페인을 벌려달라 이 말을 들으며 이래서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에 40여년을 경상도에서 집권했구나 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터득하고 중부지방도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이 어려우면 포천만이라도 하나가 됩시다.

신문중에서 태어나도 포천사람, 일동면에서 태어나도 포천사람, 어느 읍·면·동 태어난 곳 따지지 말고 모두 통틀어 포천 출신으로 통일합니다. 또 포천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동남고등학교를 졸업해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와도 포천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포천은 하나라고 통합하여 분출되는 엄청난 힘을 모아 포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재 양성과 살기 좋은 포천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합니다.



우리 모두 一心同體 되는 해

尊敬하는 擧|擧閣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목은 한해를 보낼 때면 한편으로 悔恨에 잠기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힘차고 마음 또한 太陽처럼 밝습니다.

양 재 창
포천향교 전교

밝아오는 丙戌年 새해에는 우리 모두 가슴에 가득한 희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的 課業을 完遂해야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主人意識을 갖고 가까운데서 그리고 쉬운 일부터 하나 하나 챙겨 나가야 하였습니다.

집이 아무리 가난하고 누추해도 主人은 결코 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룻밤 묵어 가는 나그네는 떠나며 그만이지만 참 主人은 자신의 집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主人意識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만의 사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主人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一心同體가 되어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人倫道德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들은 하지만, 얼마전 여성유도회와 청년유도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전통 기로연을 시연하는 경로잔치를 보면서 정반대의 생각을 했습니다.

불씨만 지키면 언제든 지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화덕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힘찬 숨결에서 희망찬 미래를 예견하는 확신을 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勝者가 되는 사회,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善行이 살아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을 굳게 잡읍시다.

숙연한 자세로 지난해를 돌이켜 보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평안과 큰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학·연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저물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안 준 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경기북부지역 기술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포천시, 대전대학교 재단의 출연과 컨소시엄 대학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적 특성과 미래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특화산업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산업집적성을 통한 지역기술혁신의 선도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구성된 산업지원부 지정 기관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2013년까지 포천시 자작동 산 32-1번지 3만여평의 부지에 종합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시험생산동, 고도화기술센터 등을 함께 조성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디자인, 열색 및 피혁 등과 관련한 3대 중점 특화사업과 지역 농산물 첨단기술화, 가구관련 기술 및 디자인 개발 등의 중점연계사업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기술집중 중심지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특화 및 집중, 글로벌 네트워크, 연구개발과 국제화의 주요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2006년도 사업목표는 종합지원센터의 건축공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입니다. 산업체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종합지원센터의 건축공사를 3월중에 시작하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 국내외 지역간의 교류 및 협력의 확대를 기술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며, 국내외 기술현황 제공 및 기업체와 제품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지자체, 대학, 산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보내 주셨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소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평안과 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역량 집중

다사다난했던 2005년 을유년 한 해를 보내고 2006년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명(黎明)이 밝았습니다.

김 인 만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개띠해의 상징은 현신적이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품위와 책임을 다하는 충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다가오는 의미처럼 상공인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본 상공회의소 육성발전에 몰신 양면으로 도움을 주시고 동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천상공회의소 창립이 어언간 2년이란 세월로 접어들고 있음에 초창기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발판으로 운영의 경험들이 조금씩 축적 성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설명회, 간담회, 교류회, 교육 등 현상실무업무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실무자의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업경영에 따른 애로요인을 청취 해당 유관기관과의 건의와 질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구인구직, 근로자 위안행사, 무역박람회, 선진업체견학, 실무부서장 교류회 등 경영활성화 추진사업과 중원원 사기진작을 도모,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본 상공회의소가 당면한 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육성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는데 대한상공회의소와 지방상공회의소가 협력 지역실정을 파악하여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신으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 회원사에 봉사하고 기업으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는 상공회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베풀어주신 호의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심과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엔 봉사활동 앞장서는 한해

친애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희망에 찬 병술(丙戌)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병 업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알찬 새해 설개로 모든 일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을유(乙酉)년은 세계무역개방 압력과 농산물 수입의 자유화 물결로 인하여 우리 농촌과 도시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반인륜적 테러행위가 무차별적으로 발생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가 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상이변 현상이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과 노력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과 혁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적 조류를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극복하면서 우리 고장 포천을 지방화 시대로 선도해 나가는 선진복지국가 교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전 시민이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조화로운 사회건설과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나라사랑 가정사랑운동으로 지난 광복 6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가계양은 나라사랑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민주시민 의식 함양과 시민의 애국심 고취운동에 앞장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진실, 질서, 화합 3대 이념으로 지역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600여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모든 시민이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역사회발전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이룩하는 한해가 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2층 풍천민물장어 · 동태탕 · 동태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전문
동태탕
동태찜



250억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